

April 7, 2025 지진 열흘 후에

만델레이 지진으로 인터넷은 물론 전화와 데이터도 사용불가여서 소통이 어려웠던 것이 여러분의 염려를 더하게 했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로 오늘도 제가 안전하여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동일한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이 한 밤중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이 끔찍한 붕괴에서 인명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었다는 것에 큰 불행중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구데타, 내전 그리고 지난해 홍수와 전기없이 혹독한 무더위를 견뎌낸 것이 끝인가 싶었습니다. 땅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자 이젠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나 지친 몸으로 여진의 공포에 살아 버티는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지 기회 상황과 필요를 위해 MCCF 임원 □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을 나와 거리에서 밤을 지새다 만난 서로의 물결에 그냥 웃음으로 안부 확인하며 감사했습니다.

미○마의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에 지친 □사님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와 여진으로 두려운 시간을 지내며 꼭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 이분들의 대답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수나 식료품 같은 생필품은 구입도 가능하고 여러 단체의 구호품도 많이 오고 있지만, 이미 지난 2년간 전기의 어려움을 겪어온 기회와 성도들은 지진으로 며칠간 아예 전력이 중단되자 그 무엇보다 전기필요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지진 이후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그 만큼 현대사회에 전기공급은 기본이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부족한 전력으로 어려움에 있던 만델레이 도시 주민 대부분은 지난 일년간 태양광 설치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MCCF(만델레이 기회 연합회)에 속한 대부분 기회는 도시 외곽 가난한 지역에 짠 땅이나 건물을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태양광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 현지 기회가 최근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청소년 모임을 하게되고, 이번 지진 이후, 마을의 전기 공급원(전화기 충전, 물탱크 가동으로 물 공급)으로 마을에 큰 도움을 주며 마을대표는 물론 마을 사람들과 큰 신뢰를 쌓는 것을 본 MCCF 대표 □사님이 태양광 설치를 부러워하며 그 필요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장의 빵 보다 진정한 빛을 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지진 이후 마을 사람들이 기회(이다나본 믿는자의 기회)로 와서 긴급하게 전화및 비상전등 충전중

이에, 미얀마의 긴 고통과 지진에 지친 만델레이(MCCF, 60 개 회원 교회)와 MECA(만델레이  
비음주의협회 28 개 교회), 그리고 사가잉 지역(SAM 사가잉 교회 연합회, 11 교회) 교회들과  
교회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태양광 설치  
(2 판넬, 배터리, 인버터)를 돕고자 기도하며 준비중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현지에서 함께  
지진의 트라우마를 겪은 한국샘들이 현지 교회를 위한 이 실제적 도움에 깊이 공감하여 십시일반  
후원금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설치를 위한 태양광 세트는 \$1,400 (한화 약 200 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최근 태양광 설치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전기공급이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2 분  
간증 비디오도 함께 공유합니다.)

저는 잠시 양곤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살 던 아파트 보수는 3-4 개월 걸린다하고, 만델레이는 지금  
한국가족들이 떠나고 여성 혼자 지낼만한 렌트할 방 한칸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완벽히 안전한 곳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함이 확실한 안전함이라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어두운  
시간에 미얀마 교회가 온전한 빛을 내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두 손  
모읍니다.

정시나 드림